



www.johnofgod.or.kr

전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한국대건관구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 26

TEL 062) 510-3001 / FAX 062) 525-4420 / stjohn@johnofgod.or.kr

문서번호 : 관구2022-08

수 신 : 모든 공동체, 사도직 센터

참 조 :

제 목 : 우크라이나 드로호비치 공동체 돕기 캠페인

2022. 03. 07.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굶주린 이에게 네 양식을 내어 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흠족하게 해준다면,
네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이사야 58,10)**

모든 수사들과 협조자 여러분에게,

우리나라는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정점이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하느님의 백성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직 센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괜찮다” 하며,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예민하게 살피지 못하는 저 자신의 이기심을 성찰하며,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고 소리를 들으셨던 창립자의 영성과 삶인지를 식별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분열된 세상의 이기심으로 벌어진 전쟁으로 깨어진 평화, 불안과 공포, 슬픔을 지각하며, 이 세계에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3월 3일 보내주신 편지를 보셨겠지만, 우크라이나 드로호비치에는 우리 수도회 폴란드 관구 소속의 공동체와 사도직센터가 있습니다. 네 명의 형제들은 그 도시의 어려운 사람들 약 240명을 돌보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이 죽어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죽어야 새로 태어나는 부활을 체험합니다. 죽어야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드로호비치 공동체의 형제들은 지금까지 돌보던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새롭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곁을 지키며 그 곳에 남기로 선언 하였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처할 생명의 위협과 불안에서 오는 안전하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음을 죽

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호스피탈러 수도회의 한 형제로서 그들이 자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 전례력에 따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이미 그 형제들은 부활을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 가족 여러분!

창립자께서는 매일 새벽 망태를 메고, 바구니를 두 손에 들고 “형제들이여! 적선하십시오. 적선하십시오.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자선을 베푸시오.”라고 외치셨습니다. 창립자의 외침이 제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저는 긴급하게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우크라이나를 위한 모금 캠페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이 고통에서 죽어 새로 태어나는 부활의 기쁨**을 주님의 축복과 평화로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염치없지만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외면하고자 하는 마음을 죽이고 새로 태어나는 부활의 기쁨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빈곤의 세계에서 새어 나오는 도움의 요청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실천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략) 도움은 실재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도움의 손길이 모욕적인 동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들 사이의 나눔으로 비쳐져야 합니다.”(새 천년기 50항 참조)

2022년 3월 7일, 창립자의 대축일을 앞두고,

창립자의 꿈 인간화가 지금-여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Bro Richard K.

관구장 고상열 리카르도 팜푸리 수사



▶ 도움주실 계좌: 우리은행 1005-701-445950 (예금주: 천주의성요한수도회)